

사이버 포교 '아줌마 바람' 기대

정부 내달부터 주부인터넷 교육

메일 홈쇼핑 신행 안방서 '클릭' 교육 요리 건강정보도 공유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이 오는 3월2일부터 1개월 20시간을 기본단위로 내년 8월까지 매일 운영돼,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인 불교계의 사이버 포교에 한류 거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실시할 주부인터넷교육에 참여하면 무료 교재에 3만원의 산수강사로, 주부들이 집에서 e-메일을 주고 받고 전자서거래로 홈쇼핑을 하며 필요한 정보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편리하고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사이버 가게부'를 쓰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현재 가정경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정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착안, 정통부가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20.1%를 차지하고 쇼핑을 가운데도 여성이 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온통 인터넷 인터넷 하는 세상에서 웬지 뒤처져 소외된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주부들에게 인터넷 활용을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자아 찾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줌마들이 집에서 인터넷 바람을

한번 일으켰다 하면 아마도 예전의 치맛바람은 비교도 되지 않을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바람이 불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녀 유학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쇼핑도 하고, 자녀교육 건강 요리 취미 등에 관한 살림의 지혜를 공유하고, 재택 근무로 돈을 벌며, 때로는 사이버 대화도 즐기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경제의 주체인 여성이 인터넷 쇼핑에 눈을 뜬 까닭은 합리적인 쇼핑체계라는 점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에 비해 제품비교가 쉽고 쇼핑시간이 줄어들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다는 인터넷의 특징이 여성을 전자 쇼핑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전용 인터넷 사이트 '톡투미'(www.talk2me.co.kr)는 경범한 전업주부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자기만의 시간과 일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원 한길수씨



(제일약품 감사) "물리적인 힘 보다는 지적능력이 증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불교신자의 대다수인 여성들 자신의 인터넷 진출을 통한 신행혁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3월부터 실시되는 정보통신부의 주부인터넷교육은 전국 대부분에서 주부이기만 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참가희망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보면된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생활정보

사발면에 티백 넣으면 별미

생활 끓이는 힘지만 느끼한 맛이 흡인 사발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물을 넣을 때 티(茶)백을 함께 넣어보자. 기름기가 제거돼 깔끔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

인터넷 매춘 감시사이트 첫선

인터넷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매춘 행위를 감시하는 '사이버바람'이 등장했다. (주)이오테크(대표 김기홍)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네티즌들이 인터넷 미성년자 매춘을 신고, 제보할 수 있는 '나이트피아'(www.nightpia.co.kr) 홈페이지를 최근 개설했다.

내달부터 금강산생수 시판

건강 북한 금강산지역에서 생산된 생수를 내달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국내 기업인 (주)태창이 3월중 금강산 생수를 반입할 계획"이라며 "최근 태창과 북측간의 협의를 통해 생수 반입에 걸림돌이 없었던 생수제조업체 표시문제가 태창의 요구대로 '금강산 생수 회사'로 결정되는 등 현안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시험 TEPS 도입

교육 정부는 올해 각종 국제기구에 파견할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 1차시험을 오는 3월26일 서울대에서 TEPS로 시행하기로 했다.

JPO는 우리 정부의 비용으로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파견돼 정규 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정부는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본부 사무국을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14명을 파견해왔다.

지진대피 민방위 필수교육

행정 앞으로 지진대응 요령이 민방위교육의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7일 지진대피 경감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지진 발생에 따른 단계별 행동 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지진 피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장기기대 신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진각 평화의 종 관광상품

문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의 종'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실용민 등 일반 시민들도 오금을 내면 종을 칠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평화의 종을 관광상품화하기로 하고 3월1일부터 실용민을 비롯해 결혼기념일, 회갑, 칠순 등 각종 기념일을 자축하는 일반 시민이 돈을 내고 종을 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이어트엔 걷기가 보약

부작용 없고 몸매 날씬...하루 30-60분 적당

건강상식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성인병의 주범이다. 하지만 막상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영원히 지속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심각하다. 힘든 운동으로 땀을 많이 빼는 것도 체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체지방을 없애는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힘들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걷기가 최고라고 말한다. 걷기는 신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력있는 몸매를 가꾸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

지방을 소비하려면 적어도 15분이상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한다. 1일 15~20분부터 시작해 익숙해지면 5~10분씩 늘리는 게 좋다. 걷는 시간은 30분 이상 60분 이하가 적당하다. 60분이상 걸으면 허리나 발의 관절이 상할 수 있다. 아침에 걷기를 할 때는 에너지원으로 당분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분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부정맥 등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시선은 똑바로 맑은 크게 흔들며 배는 끌어 당기고 발끝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걷기 자세다.

부 주지스님의 법문에 이어 2부에서는 △사물놀이 △댄스 △합창 △연극 '춘향전' 등이 펼쳐졌다.

청주 디지털상담실 봉봉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12일 상담실내 법담에서 '부처님 봉안법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불자 및 자원봉사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천수경을 비롯한 경전 봉독과 화화 순으로 진행됐다.

중고PC·도서 기증 받아

일곡초소년센터(관장 이남재)는 저소득 결손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인터넷 교실 및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중고 PC와 도서 등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활용품도 접수 받고 있다. (02)918-3543

새싹불자 취재연수

'연꽃' 기자단 28-29일

새싹불자들이 언론 포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포교지 <연꽃>에서 활동할 어린이 기자를 모집해 28일부터 1박2일간 울산 정토사에서 '제1기 어린이 연꽃 지도자 기자단'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엔 연꽃 어린이 기자 74명이 참가할 이번 행사에서는 취재와 기사작성, 카메라 조작법, 기자와 잡지제작 등 기자의 기본 소양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실시된다. 또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강의와 기림사, 감은사, 석굴암 등 사찰 순례도 곁들여진다. 한편 어린이 기자들은 <연꽃>에 일부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모범 청소년에 장학금

한국불교청년회는 3월1일 오전11시 신촌 달마선원에서 '3.1절 및 마음의 전화개동 5주년 기념 우수 모범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적우수자 및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초등학생 1명, 중고생 7명, 대학생 1명 등 총 9명을 선정해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산 살리기 등반대회

조계사 청년회는 3월5일 도봉산에서 '우리산 살리기 한마음 등반대회'를 갖는다.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산을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등반 이외에 오물수거와 짚으로 나무파기, 산신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735-3724

청소년단식

명성여중 교직원 연수

종립학교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22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첫 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예절 △프정관리 및 인사예절 △의복 예절 △승중도덕 예절 △부모 교육 등에 관해 김이주(서울대대학)교수가 강의했다.

강화 선원사 예술제

강화 선원사 학생회는 19일 강화문화회관 2층 소강당에서 '제2회 선원사 예술제'를 열었다.

학생회원들이 직접 사물놀이·댄스·연극 등을 제작·기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1



김흥국 장학재단은 19일 여의도 맨하탄 빌딩에서 동료 연예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흥국 장학재단 여의도사무실 현판

김흥국장학재단은 19일 여의도 맨하탄 빌딩에서 재단 발족을 위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스님(위원장)을 비롯해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 동료 가수 남진, 김세라나세, 현정화 前 국가대표 탁구선수 등 40여명의 사부

대중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김흥국씨는 "현재 자신의 CD 판매 수익금과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후원금 등을 통해 모금되고 있다"며 "빠르면 9월안에 불우 청소년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김주일 기자

여성개발원 창립 가시화

세미나 열고 세부사업 확정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인자) 연구·교육 분과 위원회가 3월3일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발원 창립을 위한 각 분과위원회의 임이 분주하다.

이항·실행분과위원회는 28일 오후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개발원 창립이후의 분과위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연구·교육분과위원회도 3월3일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이념과 사업방향'을 주제로 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연구·교육분과위원들이 전국의 스님, 일반신도, 교사, 청장년층의 불자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밖에 출판·홍보분과위원회는 불교여성개발원 소식지 발간 준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는 3월8일 오후7시 최종회의를 열어 불교여성개발원 위상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삼·부·농·산·은·슈·기·재·배·약·초·만·술·생·산·하·고·있·습·니·다.

7.116/99.92 MBC-TV '교향은 지금'
39.9.24 KBS-TV '5시 내고향'
3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송'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유기재배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씌이어서 열매가 열리게 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삼백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호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운동력으로 속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차나 술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산 경남 거창군 양양면 신촌리 SAM BU Farm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업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책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황토삼백초는 스님, 오늘도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친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산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0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 菴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까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